

자연대 공간확충 시급

학생회 증축 요구, 내년 예산에 반영키로

수원캠퍼스 자연과학대학(이하 자연대)이 동아리방과 휴게실등의 공간문제에 인하여 진통을 겪고 있다.

자연대 학생회는 기존에 문제가 되고 있던 동아리방과 현재 4층에 있는 휴게실 등의 제한 공간 문제의 해결을 위해 방학중에 학교측과 여러차례의 접촉을 가졌으나 학교측과의 협상에 별다른 진전이 보이지 않아 지난 18일 현재 사용되지 않고있는 2층 교수 회의실에 집기를 들어놓고 무단 점거하기도 했었다. 이에 학교측에서는 교수회의실은 대학원 강의실로 사용할 예정이라는 점을 이유로 비워줄 것을 요구, 이 과정에서 학생들과 교수가 맞붙어 싸웠다.

그러나 자연대 학생회 측에서는 이번 교수회의실 점거는 단순히 하나의 동아리방을 얻기위한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자연대 공간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 표출이라고 주장하여 팽팽히 맞섰으나 학교측과의 수차례 접촉을 통하여 유전과 한태교수 외의 각과 1인씩으로 구성되는 학교측 공간조정 위원회와 학생측의 공간조정 위원회를 각각 구성, 양측의 협상장구를 상실화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20일 들어왔던 집기

를 일단 복도로 다시 빼냈다.

이에 자연대 학생회는 "우리의 요구는 공간의 재배치가 아닌 증축에 목적이 있다"며 자연대의 증축문제를 내년 등록금조정 협의사항에 넣기로 결정했다. 자연대 학생회는 또한 현재 1학년의 경우 1호관 실험실을 이용하는 등의 공간부족 문제, 자연대의 위치에 따른 거리상의 문제, 신입교원 확충에 따른 공간확보, 정부의 이공계 증설등에 따른 대책의 일환으로서 증축의 타당성을 말하고 있다.

이에 학교측은 교직원들의 강강제실증가와 학생자치 공간의 증가로 당초 예상했던 공간이 부족하게 되었다며 개설된 강강제실 일부 강강제실 폐쇄가 되면 자체 내에서 공간조정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어 입장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서울, 인북위 설문조사

도서관이용 문제등

서울캠퍼스 인권복지위원회(이하 인북위)는 학내 제반 복지문제에 관한 설문조사를 지난 21일부터 실시중이다.

인북위의 설문조사 내용은 △도서관 이용문제(열람실·휴게실 부족, 도서관고 등) △학생식당 이용에 대한 만족도 △교내환경 문제(차량통제, 야간규율 실시여

부) △트럭상업 △분교 학생 구속자에 대한 지원문제(편지보내기, 영치금 받기) △학교 행정부서 이용시 불편한 점 △보전조 이용시 불편한 점 등이며 결과는 다음주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학교앞 상가 불매운동

공대등 2천5백명 서명

수원캠퍼스 총학생회에서는 학교 앞 주변상가에 대한 전면적인 불매운동을 전개함에 따라 학생회관내 식당과 매점의 운영시간이 오후8시와 10시로 각각 연장운영된다.

한편 총학생회에서 18일부터 불매운동을 위한 서명작업은 공대과 자대에서만 2천5백명의 학생들이 서명해 불매운동이 학생들에게 크게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입생 노래부르기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문화부는 28일 전곡식 행사중의 하나로 실시되는 '하나의 합성으로 우리의 노래, 전곡의 노래를...'에 91학번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오를까지 신청서를 받는다.

신청은 총학생회 문화부로 하면 된다.

고침

지난주 9백72호(3월18일자)11면 대학원 등록금기사를 바로 잡습니다.

한미사향 두번째인 박사과정 5, 6기와 석사과정 4기에게 등록금을 환불해 준다는 기사를 '학칙개정후 등록금을 내지 않는 것으로 하며 개정전까지는 이전대로' 한 대로 수정합니다.



'수강신청목적' 설문조사 실시

29일부터 강의평가제 기초자료 수집 위해

서울캠퍼스 교육과정심의위원회(이하 교심위)는 오는 29일부터 일주일간 3차 강의평가제 실시를 위한 기초자료인 '수강목적'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설문조사 대상과목은 교양필수 3개과목(국어, 영어, 한국사), 교양선택필수 4개과목(국제관계와 한국, 민족통일론, 생활과 법률, 인간발달), 계열교양 13개과목(인문계열-철학의 이해·미학의 이해·역사학 입문, 사회계열-심리학개론·여성학개론·현대사회와 언론·정치경제학 입문·북한

정치와 이해·사회주의 정치와 경제, 자연계열-생물의 세계·환경오염·현대사회와과학·과학사), 자유선택 6개과목(여성학과 법률, 성과 문화, 연극 영화론, 성과 사회, 성과 문화, 출판편집론) 등 총 26개 과목 1백24강좌에 대해 실시한다.

요사이 鄺형의 주목을 받고 있는 사태가 발생해 경악하고 있다는데.

다름아닌 보안사의 민간 인사할 파동 이후 간판만 바꾼 기무사가 또 다시 똑같은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는 것.

나랏님의 뒷거래, 뒷조사 애용이 민중들의 분노에 한 몫을 하고 있는것 잊분께서는 아시는지요 鄺형들 앞 제버러 못준다나.

◇·이저서 고맙습니다

최근 鄺형들의 용어사용이 형식을 탈피한 것가진 좋았으나 지나친 어휘를 남발해 상대방의 눈썹을 찌푸리게 한다는데.

일례로 지난 며칠전 某교수님의 차를 운전한 鄺형이 내릴때 "아저씨, 고마웠어요"라는 말을 했었다.

某교수님말, "말 한두마디는 듣기에 관대했지만 지나친 파격이 아니겠소?"

◇·덜컹은 새 친구

옛날 서천골에 여섯단체와 학생회관이 살고있었다. 그들에게는 새로운 친구가 절실히 필요하였는데, 이후 새친구를 맞이할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은 뿔뿔이 기뻐했다.

그러나, 덩치 큰 친구 도서관은 아직까지도 그들의 친구가 되지못하고 있고 그들은 덩치 큰 친구 도서관을 지금 이 시간 애도 애타해 기다리고 있다.

◇·'나는 뒷조사를 애용합니다'

수서비리, 조기지자제천 거동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더 한층 고조되고 있는

이공계 대학의 갈 길

현재 찬반양론이 대두되고 있다.

정부의 발표는 산업인력공급증대, 제조업경쟁력강화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여러가지 맹점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그 첫번째로 이러한 사업들이 기업체의 성장과 요구에 따라 일방적으로 세워졌다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기업체들은 수출드라이브정책을 펴고 그들을 분석하여 부품을 생산하고 조립하여, 수출하든가 아니면 외국의 부품을 우리나라에 들여와 조립하여 고부가가치상품으로 다시 수출하는 방식으로 거의 일관해 왔다.

이에따라 새로운 상품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 지지 않아 현재 계속적으로 외국상품에 비해 제품의 질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이러한 이유때문에 국제적경쟁력을 계속적으로 어리게 되어 오려려 역기능이 심화되고 있는 상태다.

두번째는 이와같은 산업구조문제 때문에 기초과학과 공학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퇴보되고 있음도 그간 정부에 의해 지적되어 왔었다.

이러한 이유때문에 국제적경쟁력을 계속적으로 어리게 되어 오려려 역기능이 심화되고 있는 상태다.

수출정책에 막힌 산업경제 모순 심화

양질의 기술 공급위해 산학협동 필요

책이라 할 수 있다.

기업 또한 눈앞의 이익에 급급하여 첨단과학의 모자란 인력의 수급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제품의 개발을 촉진시킬수 있는 연구소수의 활성화에도 주력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정부의 첨단과학진흥정책이 본교를 비롯한 대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자.

이공계대학 정원이 내년부터 4천명이나 증원되는 상황인데도 각 대학의 실정은 이를 수용할 만한 교수와 시설의 확보가 어려

운 상황이고 현재 공과대학들의 실험실습시간 또한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이공계 대학이 갖고 있는 실험기기는 88년말에는 이학계가 36개교에 1백81대, 공학계가 27개교에 1백81대만 보유하고 있어 선진국의 8분의1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이 실험기자재들도 대

이러 아니할 수 없다.

서울대는 이로인해 대학자체의 노력으로 학생1인당 연간2백만원의 추가교육비를 확보할 수 있었으며 이는 전국의 공대가 되새겨 생각해 볼 일인 것이다.

올해 신입생부터 30명을 증원한 전자공학과의 경우 교수층면과 실험실확보에 대해 여러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 가시

소위 명문대에서 우수한 학생들을 흡수하게 되어 상대적으로 교육수준의 격차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본다. 또한 올해 문교부의 승인에 의해 30명의 인원을 증원하였으나 교수층면도 실질적인 대책이 이루어지지 않아 전자공학과 교수들은 현재 굉장히 힘든 상태다"라고 밝혔다.

또한 대학에 대한 기업체의 지원이 일부대학에 한정되어 있어 '일할 사람이 없다'라는 기업체의 말은 서로 앞뒤가 맞지않는 얘기인듯 하다.

이성에서 본바와 같이 정부의 이공계첨단과학과 증원정책은 자연과학을 연구하는 학과간의 취업격차와 발전의 격차를 심화시킬수 있고 학교간의 수준차이를 더 크게 만들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은 눈앞의 이익에 급급하여 인력수입만 하지 말고 기초과학의 연구에 박차를 가해야 할것이며 정부도 이에 알맞은 정책을 펴 나가야 한다.

이와따라 기업, 대학에 대한 지원확대등 대학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노력을 해야 할것이다.

〈오세윤 記者〉

해방의 징을 울려라

정을 울려라.

해방의 징소리를 울려라.

평등과 자유의 세상, 굴종과 침묵을 깨고 억압과 착취의 굴레를 뚫고 함께 어울어질수 있는 세상을 향해.

(지난 18일 일간교실에서 열린 제1회 경회기족 민주단체 한마당 에서)

〈방현기 記者〉

나는 뒷조사를 애용합니다

최근 서천골에서는 공간 부족심화로 인한 학우들의 소화가 빈번하다고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은 공대, 산대, 자연대 학생회관 거의 모든 단대에 이른다?

새롭게 거듭 태어나기 위한 작은 첫걸음은 계획부터가 중요하거늘, 우리의 마스터플랜은 문제가 없는지 중간점검이 필요하지 않겠소?

91년도 징병검사 및 병역처분 기준에 관한 안내

091년 징병검사 대상

- 72년 1월1일~72년 12월31일 출생자 (19세)
- 기타 연거 사유가 해소되거나 연거기간이 끝난자

0재학생 입영 연기

-19세자는 학생이라 하더라도 전원 징병검사를 받아야 하며, 징병검사를 받은 후 고교이상의 학업에 재학하는 입학한자는 학교별 재학연령(전년도:22세, 대학:24세, 대학원:26세)내에 졸업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별도 출원없이 학적보유자 명부에 의거 졸업시까지 입영이 연기됩니다.

0재학생 입영원 안내

-재학중 입영을 원하는 자는 학적을 보유한 채 본적지 구·시·읍·면·에 재학생 입영원을 출원하면 가능한 범위내에서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입영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입영통지서 수령후-휴학 수속(학입 공백 해소)

0학력별 신체등위에 따라 병역처분 되는 기준

구분	학력	고졸이상
현역	현역	신체등위 1~2급
	대장	신체등위 3~4급
방위소집	방위소집	신체등위 3~4급
	면제	면제

0거주지 징병검사 출원

본적이 타시도인 자로서 서울에서 징병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본적지와 거주지 징병검사 장소가 동일인 경우 제외)거주지 구청 징병검사 개시30일까지 징병검사원서 1부를 동사무소에 출원하면 됩니다. (단, 본적지 징병검사 기일이 경과된 사람은 제외)

0병무청장

병무청장

1991학년도 제1학기 해외학술활동 보조금 지급대상자 선발

국제교류위원회에서는 교원 해외학술활동보조금 지급규정에 의거 1991학년도 제1학기 교원 해외학술활동보조금 지급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선발합니다.

1. 신청자격: 본교에 재직중인 전임교원으로 국제학술회의가 개최되기 전에 학술회의 프로그램에 발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

2. 선발인원: 약간명

3. 제출서류

- 가. 국제교류위원회 소정양식, 나. 국제학술회의 프로그램, 다. 초청장 사본1부, 라. 발표논문 또는 논문초록 1부

4. 신청서 배부 및 접수처: 국제교류위원회 사무국

5. 신청서 접수기간: 1991. 3.20~4.15

6. 수혜자의 의무: 학술활동보조금 수혜자는 귀국후 1개월 이내에 학회에서 배포한 인쇄물을 첨부하여 보고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991학년도 2학기 교비 해외연구파견 교원선발

국제교류위원회에서는 교원 교비해외연구파견 규정에 의거 본교 교원의 해외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1991학년도 2학기 교비 해외연구파견 교원을 아래와 같이 선발합니다.

0아 래

1. 신청자격: 본교에 3년이상 재직중인 전임교원 단, 국내외 학술진흥금에 의해 장기(3개월이상)해외연구활동을 하고 귀국한 자는 만3년이 경과 되어야 함.

2. 선발인원: 3명

3. 파견기간: 1991년 9월1일 1992년 2월29일(최소 4개월이상 파견되어야 함)

4. 제출서류: 국제교류위원회 소정양식

5. 배부 및 접수처: 국제교류위원회 사무국

6. 신청접수기간: 1991. 3.20~4.15

7. 수혜자의 의무

- 가. 연구비 수혜자는 해당학기에 반드시 출국해야 하며 출국 30일전에 외국의 연구기간 또는 대학으로부터 받은 공식적인 초청장을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인이 해당기간중 출국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격이 취소됨)
- 나. 연구비 수혜자는 귀국후 2년간 의무복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의 불이행시에는 지급된 연구비의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 다. 연구비의 수혜자는 귀국후 6개월 이내에 연구결과를 논문으로 발표하여야 하고 소정양식에 의거 연구결과보고서를 국제교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8. 수혜내용

- 가. 수혜자는 왕복 항공료와 월 \$900씩 4개월분까지 계산, 지급받을 수 있다.

취업정보실 이용 안내

학생처에서는 졸업후 취업안내를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취업정보실을 개설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오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1.취업 및 진로 상담

2.취업 정보 제공

추천 의뢰인 소개, 채용 공고, 취업·수험 뉴스, 입제별 과거 취업 정보, 자격증 취득정보, 기타 데이터 통신(주)취업정보 은행으로부터 제공되는 정보

3.취업준비 안내

시상식, 면접시험요령, 이력서 작성법, 자기소개서 작성법, 논문·작문작성법, 작성·인성 검사요령, 취업준비강의 안내

4.취업자료 열람

*위치: 서울캠퍼스 학생회관 1층

*기타 자세한 내용은 취업정보실을 방문하거나 서울캠퍼스 학생처 취업담당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EL.961-0045~48, 0167)

영어회화 특강

1.주 관: 대학원 총학생회

2.강 사: JAHON RICHARDS

3.대 상: 본교 대학원 및 대학 재학생

4.강의내용: American Stream Line

- Spoken English for Korean
- Interview English
- Basic human relations technique
- How to deliver a speech
- International topics
- Pronunciation Correction

5.강의시간: A:월, 수 금 09:30~10:30 B:화, 목 토 09:30~10:30 C:반, 월 수 금 17:30~18:30 D:화, 목, 17:30~18:30 토 14:30~15:30

6.기 간: 4월1일~6월30

7.수 강 료: 9만원 (3개월분, 2회 분납가능)

8.강 의 실: 대학원 세미나실 (본관3층)

9.수강신청 및 문의: 대학원 총학생회 복지부 (전화:961-0125)

대학원 총학생회